

시끌벅적 e-스타



이유야 어떻든... 누나가 좋다

시대를 따라 돌고 도는 '트렌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남녀들에게는 연애도 하나의 '트렌드'다.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연애 '트렌드'는 드베커플이다. 쉽게 말하자면 오빠와 동생이 아닌 누나와 동생의 로맨스를 뜻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새로운 연상연하 커플을 소재로 한 '연상녀가 좋은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다. 동영상 제작자인 남성. 남자의 입장에서 밝힌 누나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나는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투정을 하며 쟁겨줘야 하는 어린 여자친구 대신 척척 쟁겨주는 든든한 누나들의 모습이 마음이 간다는 설명이다. 경제적인 부담감도 적다. 성적인 허용범위가 넓은 것이라는 확

신도 누나들의 매력을 높인다. 확신의 이유는 누나에 비해 성적 경험이 비례할 것 이라는 남자들의 생각 때문. 상대를 리드 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쿨한 이별도 누나들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 나이가 들수록 연애 감정이 무뎠어 연하남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그 설명이다. 모성애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남자들에게 포근함은 누나들의 결정적 매력이다. 네티즌은 "연애에는 정답이 없다. 나도 여자친구가 5살 많지만 돈 내가 더 많이 내고, 어리광도 많이 부립니다", "잘 만들었네요. 동감합니다", "연상여자도 여자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연상이라고 특별한 건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아버지의 성교육

아버지가 성교육을 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덟 살 먹은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아빠가 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네, 아빠 뭐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다름 아니고, 성에 관한 것인데... 그게 말이야..." 그러자 당황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편히 말씀하세요. 무엇이 알고 싶으신데요?"

■할머니의 항변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장마철이 되어 아픔을 참지 못한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쭈시는데 요즘 같은 날씨엔 도저히 못 참겠수. 혹시 나쁜 병은 아닌가 모르겠어."

■어떤 남자

식구가 많은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쇼에 갔다. 식구들에게 우랑 풍우를 보여주려는 남자가 매표원에게 가 사정을 했다. "이봐요, 우리 일행은 나하고 마누라 그리고 아이가 열 세 명인데... 혹시 반값으로 그 황소 좀 구경할 수 없을까요?" "자네가 열 세 명이나 된다구요?" 깜짝 놀란 매표원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 좀 보라고 황소를 데

리고 나올 테니..."

■답안지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던 학생이 공부하는 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시험날을 맞았다. 시험문제를 풀지 못해 한참을 끙끙대던 학생은 궁여지책으로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답안지에 쓰고 교실을 나왔다. 다음날 학생은 이렇게 채점된 답안지를 받았다. '하느님은 100점, 학생은 0점!'

■할인가격

50대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갔다. 젊은 남자 점원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젊고 멋져 보이십니다." 기분이 좋아진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말했다. "어머 그래요? 내가 몇 살 같아요?" "30대 초반 같으세요." "어머 그렇게 봐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남자 점원이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대답했다. "필요. 저의 가게에선 워든지 30% 할인해 드립니다."

■수면제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아가 불평을 했다. "이웃 집에 있는 개들이 밤낮으로 짖어대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러자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여기 새로 나온 수면제가 있는데 꿈을 꾸듯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 주 뒤 그 여자가 다시 의사를 찾았다. "선생님 처방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전 보다 더 힘들어 졌다구요." 의사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방해준 약은 시중에 나온 약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은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그렇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밤새도록 개를 쫓아 다니며 약을 먹이느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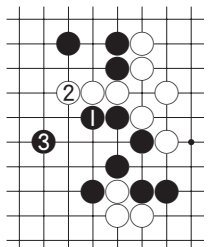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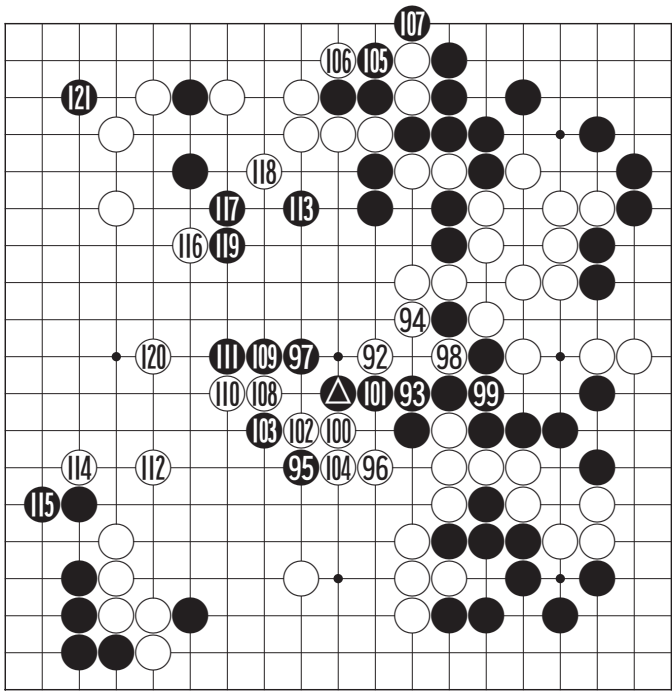
시니어, 지지옥션배 2승만 남겨

서승욱 9단이 18일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15국에서 조혜연 7단을 152수 끝에 백불계승으로 물리쳤다. 시니어와 여류 기사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연승대항전 형식의 지지옥션배 우승컵의 향방은 시니어 쪽으로 더 기울었다. 여류 팀은 루이웨이나이 9단과 박지은 9단 등 2명만이 남았고, 시니어 팀은 한국 랭킹 50위권의 7명이 포진해 있다. 16국은 서 9단과 루이 9단의 대결로 이어진다. 우승상금은 7천만원이며, 대국 본선 대국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3연승부터 2백만원, 이후 1승당 1백만원의 연승 상금이 추가 지급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급소 연타

2회전 2국 5보(92~121)

白 김광식 5단 黑 표정재 5단 (주 승립) (빛고을 교사회)



<참고도>

대마가 쫓길 때는 빨리 살 수 있는 모양을 갖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소를 안 당해야 한다. 그런데 흑 ▲이 안일한 수로 백 92의 급소를 허용해 호되게 공격당하고 만다. 흑 ▲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미는 수가 좋았다. 백 2로 늘 수밖에 없을 때 3으로 모양을 갖추면 다이상 쫓길 일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흑 93으로 이은 수도 문제, 이 수로도 101에 여야 했다. 상대가 허점을 보이자 김광식 5단이 강호의 면모를 드러내며 백 92, 100 등으로 급소를 연타하며 아픈 곳을 계속해서 찔러댄다. 백 104에 이르러 드디어 표정재 5단이 참지 못하고 흑 105로 상변 백 두 점을 쟁겼는데 그레도 이 수로는 111에 지키는 것이 정수였다. 반발의 대가로 백 120까지 백 집이 눈덩이처럼 불풀어 오르고 있다. 흑 121이 최후의 승부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e.g., 子, 丑, 寅) and text describing fortune for that sign on June 19th. Includes dates like 6월 19일(음 5월 16일 庚寅).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ssons: 1. English (I'm free Sunday), 2. Korean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3. Chinese (我属马), 4. Japanese (陵遲處斬(능지처참)).